

헌신적인 미국장로교 목사님들이 화해에 관해 보낸 서신들  
2015년 11월



친애하는 미국장로교의 어르신들과 형제들에게,

우리는 인종적 화해의 주제들을 언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교단 내의 성령의 움직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6 년 차기 총회 때까지 이끌어 가게 될 이 문제들에 대해 반성 할 시간을 가져 보니, 우리 교단 전체에 걸쳐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런 우려들과 씨름을 해 온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의 다수는 이 주제들을 토론 하는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노회들에 속해 있습니다.


첨부된 서신들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동시에 교회의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된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한 모임으로부터 보내진 것들입니다. 이 소수의 편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위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보게되는 씨름들, 염원들, 권면들과 초대들의 다양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이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그들 나름의 삶의 모든 길에서 불러 내어 함께 예수의 주권 아래 화합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의 능력의 부요한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서신들은 쓰고 있는 목사님들 중 아무도 이미 "도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인 연합을 수용하는데 성숙해 가도록 훈련을 받고 제자화 되어 가는 다양한 단계 속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걱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에서 우려 난 것임을 알아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어떤 면에서 공격적으로 말했다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게 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해졌을 수도 있었던 언어 표현에 대해 초연하게 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서신들은 화해라는 주제에 관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주제님께 총괄적이거나 마지막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수 년에 걸쳐 고심해 왔다고 하는 것과, 우리는 이 반성과 회개의 해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발하고, 도전하며 격려하는 데 이것들을 작게나마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로서, 우리 마음에서 우려난 생각들과 경험들을 여러분의 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원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더 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

겸손히 경의를 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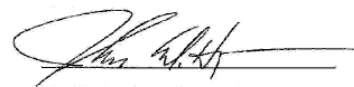
  
E.C. Bell


  
Abraham Cho


  
Kenny Foster

  
Craig Garriott

  
Barry Henning

  
Mike Higgins

  
Irwyn Ince

  
Randy Nabors



서신들 목차  
(알파벳 순서입니다)

E. C. 벨(Bell)	7
아브라함 조 (Abraham Cho)	11
케니 포스터 (Kenny Foster)	13
크레이크 게리엇트 (Craig Garriott)	19
배리 헨닝 (Barry Henning)	25
마이크 히긴스 (Mike Higgins)	31
어윈 인스 (Irwyn Ince)	33
랜디 나보스 (Randy Nabors)	35



*E.C. 벨은 미국장로교에서 성장했으며 커버넌트 대학과 커버넌트 신학교 모두의 졸업생이다. 북가주, 콜로라도, 오레곤에서 미국장로교 교회 개척을 보조 해 왔다. 현재는 오레곤 주 뉴버그 시 소재 체할렘 벨리 장로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다.*

## 은근한 접근

차타누가 총회에서 상정된 개인적 결의안이 언급될 필요가 있었던 주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결의안이 미국장로교 안에 문화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하나의 변화를 표시하는가? 나는 그 대답이 "아니오." 라고 짐작하게 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상정안은 미국 장로교 역사의 상당한 부분을 정의해 온 보수적 문화와 신학의 연속성이라고 주장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댁니(Dabney)의 문화 주도적 주석과 북미주의 공장들과 광산들에서 일하던 이민자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곤경과 불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북 장로교 의지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장로교 알라바마 대학의 의장이었던 에드워드 V. 래미지(Edward V. Ramage)가, 1963년 4월에 악명 높은 "연합을 위한 소명"에 서명했을 때, 그의 행동 속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버밍햄 구치소에서 보내는 서신"에 있는 킹 박사의 강력한 반응이 래미지와 다른 목사들의 요청의 불의함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현상 유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미국장로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나라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엄청난 명예를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일시적 신분과 부의 유혹적 노래에 면역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윤리적 타협을 해 왔습니다. 옛 이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 승배의 죄악된 결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을 강권 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 이상들을 모두 다 단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가 설립된 후 40여년, 개인적 결의안의 시점과 제한된 범주가, 그것이 억압 당하는 자들을 위한 정의의 지연을 뜻하더라도, 오래동안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안정의 이상들에게 고정적으로 드러 온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이고 신학적 전통에 자연스럽게 잘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헌신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유익을 얻고 있는 현실 문화와 사회적 불의의 어떤 것도 알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화 '보수주의'에로의 불굴의 헌신으로 표식되어 온 우리의 역사적 유형을 계속하고 저개발된 성화의 교리를 추종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자신들을 미래의 뒤늦은 사과들과 지속되는 왕국의 무능력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결의안으로 제공된 기회는 단순히 많이 필요되었던 누락과 과오의 특별한 죄들을 고백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또 "이 유형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변화들을 필요로 하는가?" 같은 더 깊은, 훨씬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제도적 연속과 보존의 이상

인종 분리와 짐 크로우(Jim Crow)가 성경적으로 변호 불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마치 갑작스럽게 된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1990년 중반에 나는 커버넌트 신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보수적 미국장로교 형성을 이끌어 낸 운동력에 기여한 문화적 압력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속적 발전의 '부정적' 영향-특히 민권과 여성운동의 부상-을 매도하는 시기의 설교들과 글들에서 참고 사항들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적으로 새로운 보수적이고 신실한 개혁주의 교단이 형성되어야 하는 증거들과 이유들에 대한 증거로 지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수의 접근이 가능했던 세인트 루이스와 아틀란타에 있는 '은근한' 미국장로교 지도자들과 면담을 하고 그러한 과거의 선언문들과 견해들의 오류를 공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물었을 때 대답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장로교 내에 다양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인종 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분열을 야기하고, 어떤 종류의 고백적 선언문도 그들의 유산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게 주어진 제안은

우려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창립자들이 주님에게로 돌아 가 함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며, 분열없이 그 주제를 언급할 수 있는 미래의 때를 위해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재정적 현실을 고려해 보라. 단적으로 교회 개척과 교단적 제도들을 위하여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할 수 있다. 기금들은 반분열주의자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때가 되면 대화나 고백이 거의 분열없는 혹은 전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열린 교회들을 더 많이 개척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

피상적으로 보면, '온건한' 접근이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마침내 미국장로교회가 인종 분리, 그 속에 우리의 역할과 그것을 지속시킴으로 거둔 보상들이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공적으로) 제기하기에 딱 맞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장로교 창립 세대의 상당 수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거나 분열적으로 될 수 있는 격렬한 논쟁에 관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확신들이 주는 용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과거 90 년대에서는 그것이 상처를 입는 전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근 2000 년까지 우리가 공개적인 인종 분열주의자 의장을 선출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적인 남부 교회들로부터 보내진 교회 개척 자금들이 소진되었을 수 있었다고 제안한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기금들을, 대체적으로 인종과 인권의 주제들에 대하여 더 성경적인 미국장로교 회중들을 개척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난 받을 만한 주제들에 대하여 '묻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정책을 내려 놓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더 젊은 세대가 질문을 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도적 관점에서 돌이켜 이 주제를 언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제도들을 위하여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더 젊은 인구들을 끌어 당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더 이상 침묵 할 수 없고 수적 성장에 대한 어떤 희망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장로교 전반에 걸쳐 이민과 범죄에 관련된 알파하게 베일로 감추어진 인종적 언급들에 대한 관대함이 하나의 염려하게 하는 동향 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사십년 후에 다루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에 대한 논리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한 인간적 관점에서 보아도 단기 결과를 가지고 논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그러한 실용주의의 계속적 수용이 장차 우리를 조직적인 억압의 가해자들로 또 심지어는 세속주의 세상이 (성경적) 불의를 인식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것을 부정해온 사람들로 정죄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나 현재의 불의들을 검토하는 지속적 의지가 없이 우리가 편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과오들에 대하여 사회하도록 정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왜 그렇게 오려 걸렸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가 제도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친구들과 맞서는 것보다 희생자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한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약한 성화

제도적 수준에서 인종차별주의의 언급을 실천적으로 원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그 주제를 언급하기를 원치 않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미국장로교의 실천적 견해와 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 깔려 있는 약점을 밝혀 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광이 이 편에선 성화가 불완전 할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목회적으로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종종 더디고 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의 죄를 단번에 모두 드러내신다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주목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죄들과 오류들이 즉각적으로 인정될 것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런 죄들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이 그 죄를 그들의 유산의 기초적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의 회개의 어려움을 과소 평가 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언급하고자 도모하는 목회적 참여 문화를 전혀 만들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니라 이 죄의 구속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성령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종 분리주의자 장로 장로 혹은 치리 장로를 언급하는 것이 대한 저항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재 정의하여 그것이 인종 분리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14 년에 그린빌 신학교는 인종분리주의자 교수 직원을 위한 교수직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대응으로, 인종분리주의자의 견해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재정의하여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비극적인 행복이고 골칫거리가 되는 복음의 능력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성격상 성적인 죄들(간음, 동성애, 성적 문란)과 같은 특정한 죄들의 유형에 대해서는 기꺼이 맞서서 치리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노예제도나 인종분리주의가 성경적으로 변호될 수 있는 입장들이고 이 나라의 법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내 직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힘있는 지위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하여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까? 만일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이 야기하는 전투가 제도들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건한' 입장을 채택할 의지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 심오한 함의들을 갖습니다. 비극적이지만 무관심 역시 심오하게 비판적이고 오만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목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단순히 노력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의 성화는 갈등과 언쟁의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린 것입니까?

## 인종차별주의와 학대가 없는 지역은 없다

각 회중들이 그들의 참여를 고백하는 개인적 결의안의 권장은 중요합니다. 인종차별주의는 남장로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대 이민기 동안 중서부 도시들 가운데 있었던 백인들의 폭동에 의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들과 사업들이 불에 타는 것으로부터,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들로부터 전혀 저항을 받은 적이 없는, 전국에 걸쳐 있었던, 그러나 특별히 시애틀과 포트랜드에서 시행되었던 용자 특정 경계 지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영향과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구 북미주개혁장로교회 교회들은 남동쪽 도시들의 버스 통학을 두고 폭동들이 있는 동안 침묵했고, 아무도 백인들이 대체로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우리 교단 교회 개혁의 노력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교외 지역들로 백인들이 탈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sup>1</sup>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단순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본토 미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남미인들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죄가 있어 왔다는 것을 보기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의 집을 드러다 보아야' 합니다.

## 결론:

한 지혜로운 친구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들은 그대 곁을 지나가지만 그대의 문제들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 미국장로교를 위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건하고, 협소하게 사과에 초점을 맞춘 사과에 국한한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만일 "우리는 왜 학대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불편해 지는 일이 없도록 참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편안해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왕국과 제도들에 대하여 진짜로 누구의 왕국과 제도들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와 같은 마음을 흔들어 놓은 질문들을 하지 못 한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미국장로교 홀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실용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해 질 수 없고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펼쳐 놓은 치유 능력이 있는 나무 아래서 잠을 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에 빠지도록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의 제도들과 관계적인 호의를 위협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는 반면 학대 받는 자들에게 인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온건하고 보수적인 지연 전략의 거짓 지혜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혜를 추구 할 것입니다. 장래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사십년 동안 같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고백해야만 되게 되기 전에 제도의 보존과 지연된 성화의 역사적 유형으로부터 돌아 서십시오.

E.C. 벨

오렉주 뉴버그 시에서

2015년 8월 19일

<sup>1</sup> 1970년대 후반까지 버지니아 주 같은 주들에게 있었던 '합법적'으로 강요된, 흑인과 백인, 빈곤층의 박멸은 좋은 하나의 실례이고 2014년에 포트 로더데일 시가 무숙자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것을 막는 시령을 공시했을 때도 포트 로더데일 시의 교회들은 침묵했다.



아브라함 조는 뉴욕 시 소재 리더며 교회 동부 지도 목사이다. 10년 이상의 도시 사역 경험을 가진 한국 계 미국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미국장로교회와 더 넓게는 미국 도시들 상황 내 인종과 민족성에 관한 대화 속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성찰해 왔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아시아계 미국인 강도 장로로서 이 서신들의 다른 저자들의 목소리들에 제 목소리를 하나 더 보탬니다. 한 편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너무 종종 교회 안에 있는 인종과 화해의 주제들에 대해 침묵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혹, 만일 침묵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너무 종종 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미국장로교 내의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 형제들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저의 특별한 관점에서 말하겠습니다.

총회에서 민권추모에 대한 개인적 결의안을 둘러싼 우리 교단적 토론들이 깨어나는 동안 저는 자주 금년이 확실하게 우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들을 위하여,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치유와 기쁨으로 인도하게 될 회개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박사는 "어느 곳에 있는 불의는 모든 곳에서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탈피할 수 없는 상호 연락망 안에 잡혀 있고, 단 별의 운명에 묶여 있다. 무엇이든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것의 역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엷핏 보이는 정의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곳에서 정의를 위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땅히 우리 모두를, 다 함께, 더 큰 희망과 기쁨으로 인도 할 진지한 회개의 성격을 가진 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장로들로서, 우리 모두는 참된 회개의 시험이 대부분 어떤 사람의 고백하는 극적 순간의 진실성의 깊이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달들, 해들 가운데 나타나는 의도적이고, 일상적인 순종의 행위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생활 방식의 고집스러운 배척과 성령 안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방향의 집요한 추구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한 근심과 참된 회개가 제가 제 자신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겸손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고린도후서 7:8-11)

저는 이 간절함, 이 열심, 이 분노, 이 두려움, 이 사모함, 이 깊은 우려와 시행된 정의를 보기 원하는 준비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형제들이 그들의 서신들 속에 바로 이 질문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저는 반복하여 우리 총회 기간 중 전 총회적으로 열렸던 세미나에서 치리 장로 알렉산더 (Alexander) 박사가 제기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떻게 미국장로교 안에서 민족적 전도와 사역을 진전 시킬 수 있는가?"라고 한 질문의 이야기로 돌아 가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 분은 기린과 코끼리의 단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기린은 수년에 걸쳐서 기린의 독특한 형태와 필요에 맞도록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 문들은 좁고 높았습니다. 천정은 높았고 탁자들과 의자들은 땅에서 많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린들을 위하여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적절하게 맞추어졌습니다. 하루는 몇몇의 코끼리들이 찾아 왔고, 기린들은 친절할 태도로 그들을 자기들의 집 안으로 들어 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기린들은, 훌륭한 집주인답게, 코끼리들이 손님들로서 환영받고 있고 공경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치채지 않게, 코끼리들은 의도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실제적 장애물들과 불편하게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그들이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노력이 없이 또 그 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 문들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의자들은 그들이 앉기에 너무 높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의자에 올라 앉았을 때, 그들의 무게 아래 의자들은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모든 기린들의 우아한 손님 접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 집들이 전혀 코끼리들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코끼리들이 일시적 손님들로 있는 동안은 훌륭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기린들과 코끼리들이, 동등한 형제들로서, 가족들로서, 한 가족으로 다 함께 살 것을 찾는 것이었다면,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손님 접대를 위한 신실한 몸짓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알고

있던 대로의 집의 완전한 재점검과 재건축을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동등한 자들로서 그것을 마땅히 같이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게 남아 있는 세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것이 제게 우리는 반드시 같은 신앙의 집 안에서 차이점을 관통하여 함께 살 것을 깊이 있게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절함과 분노와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단을 위해 성경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평화롭게 공존하는 장소, 혹은 심지어, 그것에 관한, 단순한 인종적 화해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긴 과오들과 불의들의 역사의 앞에서 인종적 화해의 건너 편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진정한 친밀함의 공동체를 위한 성경적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장로교는 이 친밀함을 간절함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집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은 한 무리를 염두에 두고 세워진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게 보여 줍니다. 사실 우리 집은 이 무리를 위하여 아주 잘 지어져서 그 집의 특수성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러므로 정상화되고 보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무리들이 들어 오면서, "기린들"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코끼리들"이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이 집은 결코 그들에게 잘 맞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할 때, "기린들"은 마땅히 듣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누구든 단순히 어떻게 이 집이 손님 접대를 할 수 없는 집이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 몇몇이 우리가 조직적 인종차별주의와 암묵적 편견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부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건축자들 쪽에 악의를 할당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된 것은 제도적 구조들과 가정들이 지엽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표현하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입니다. 미국장로교회는 이 제도적 편견들의 실상을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그 구조를 변경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집 안에서 동등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까?

셋째로, 그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우리가 마땅히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제게 상기 시켜 줍니다. "기린들의" 위원회 홀로 "코끼리"의 선을 위해 이 집을 개조하는 과제를 착수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영속하려는 유산으로 물려온 가부장주의를 언급하지 않은채, 허울뿐인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배타적으로 만들어진 "코끼리들"만의 위원회 역시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인종들과 배경들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동등한 자들로서 탁자에 앉을 자리를 주고, 우리 가정의 방향에 관한 진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되어졌다면, 저는 감히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 중 우세한 문화에 속한 형제들 쪽에, 불편함, 심지어는 상실감을 결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반드시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 함께 즐거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세워 놓은 적개심의 분열 시키는 벽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의 눈물과 피의 댓가를 지불 하였다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는" (엡 2:15)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들 역시 무엇인가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고자 기도합니다.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간절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사모함과 깊은 우려와 시행된 정의를 보기 원하는 준비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경의를 표하며,  
아브라함 조 목사  
뉴욕 주 뉴욕 시에서  
2015년 9월 28일

케니 포스터는 지난 9년 동안 텔라웨어 주 도버 시 소재 그레이스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왔다. 케니의 소명은 단인종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비전인 다인종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케니와 그의 아내 카니는 결혼한지 30년이 되었고, 두 아들들 코리, 코디와, 며느리 케이틀린을 두고 있다. 코리는 차타누가 시에 살고있고, 반면 코디와 그의 아내 케이틀린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블랙 시에 거주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반드시 백인 남자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신 제 아버지의 말씀은 형상 없는 진흙 덩어리를 빚는 토기장이의 손가락들 같았고 그것이 아홉 살 난 소년으로서 제가 가졌던 세계에 대한 지각이었습니다.

저의 유치한 지각의 진흙 속에 작업을 한 다른 손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던, 저의 부친은 우리가 매주 성경 구절을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부친 앞에 가기 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한 요한복음 11:35 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말 다툼하면 싸움이 선행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의 희망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친 앞에 있었을 때 누가 어느 구절을 외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부친은 오류가 있는 사람이었으나, 나로하여금 성서를 배우게 함으로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아름다운 동굴들을 채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기도의 깊은 것들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오합니다!

주님이 놓아 주신 이 기도의 유형을 채광하는 동안 제가 발견한 최근의 보석은 기도의 첫번째 기원과 인종주의적 화해 사이의 연계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인종적 분리와 인종주의적 분열의 사안들을 무시하는 것이, 구별하지만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위치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인정하는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분과 화평을 유지하고 그 분이 하고 있는 것과 화합하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저는 이 생각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결핍된 거룩이 채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를 주시하고 있는 세상으로 옮겨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의 광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계속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연료 공급을 합니다.

그 위에, 이 기도는 행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자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적 삶을 위해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왕국을 건설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 속에 표현된 모든 것이 지금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을 위하여 이 제자들의 기도 속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I. 우리는 우리에게 거룩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룩히 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할로윈과 연관해서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룩히 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고, 그 대답이 "할로윈입니다"라고 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로윈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된 저녁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차려입고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거룩히 되다는 말의 용법입니다. 나아가서,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에 관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투입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의로워서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다 아니면 거룩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 말 속에 있는 다른 용법들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서, 급진주의적 이슬람교도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거룩한 지하드"라고 언급하려고 합니다. 혹은 어쩌면 희극 몬티 파이톤의 거룩한

잔에서의 용법은... 심각해 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룩을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에 관해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말을 사용하실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히 되다는 성별하는 것, 성화하는 것, 신성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은 순결이고 완전히 다른 어떤 특질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사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은 찬란하며 그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하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 약 551 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창세기 2:3 의 안식일부터, 모세가 불 타는 가시덤불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서 있었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한 것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6 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거룩하고,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며 헌물들은 거룩해야만 되었고, 어떤 날들은 거룩했고, 성전은 성소와 나아가서 지성소가 있었으며, 제사장과 그의 가계는 주님에게 거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과 평화는 같이 간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고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15-16 에서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는 거룩한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의 친절은 거룩한 친절이고, 그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왕국은 거룩한 왕국입니다. 그의 집은 거룩하고, 그의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가 행동 할 땐, 그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는 그의 진노 중에 거룩합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을 내가 좋아하는 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할 수 있고, 그의 진노 중에 거룩하며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부분들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해부하듯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그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어찌면 만일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결핍된 거룩을 채워 주시는 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 II.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존 스타트(John Stott)는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 우리는 행악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재판장과 반드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 담아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나 내가 경험해 본적이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랑과도 같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추정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시편 27:10 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 49:15 는 묻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릴 수 있고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 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8 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에밀 브룬너(Emil Brunner)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하며, 용서하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거룩과 사랑이 동등하게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시되어진 유일한 장소이다... 속죄의 객관적 측면...은 어쩌면 그렇게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유연성이 있을 수 없는 의와 그것의 형벌과 초월적 사랑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제외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는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상태 속에 버려 두지 않으려고 했고/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용인할 수 없었고 그의 사랑때문에 우리의 파멸을 용인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거룩과 사랑 둘 다를 주십니다.

신학자 P.T. 포사이트(Forsyth)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제공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거룩의 출발점은, 그것의 동정, 연민 혹은 애착 보다는 복음과... 신학적 자유주의 사이의 분수령이다... 나의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의] 결별 점은 그리스도의 첫번째 관심과 계시가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거룩이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인류에게 사랑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은 죄와 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서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향해 달려 가 그들을 가족으로 개종시킬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접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대면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의 만남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부릅니다. 그러한 사랑과 맞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일이 무엇이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들, 분노, 정욕들, 반항과 교만, 죄책과 수치심, 제 방법대로 의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의 모든 시도들을 가지고 나갔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주여, 죄인 중 하나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러야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 주시라고 구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아이로 만드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첫번째 걸음입니다. 이것이 그를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을 줍니다.

### III. 우리는 공동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에 옮겨 줍니다. 제가 "우리"라고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의 전체 가족을 뜻합니다. 바울은 엡 3:14-15에 가족의 크기를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범한 지혜가 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하여 하늘의 영역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비범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두시려는 그의 뜻의 비밀을 계시하시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엡 1:10)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서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이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을 보았다고 추측합니다. 그 기도 속에 사용된 인칭대명사들이 일인격 복수형인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들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 안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맥락은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가족의 실천을 살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날 제가 트럭을 운전하던 때 우리는 끊임없이 트럭과 트레일러에 옆에는 BI-LO 라는 로고가 붙여져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운전하는 법을 그 회사가 사업을 하는 법과 연결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저는 그 트럭을 제외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트럭, 회사와 저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감하는 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 우리가 의도적으로 종족, 장애들, 계급의 선들을 관통하여 가까이 하는 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정체성 안에서 나누는 모든 법들입니다. 우리는 백인 그리스도인들, 한인 그리스도인들, 남미 그리스도인들, 흑인 그리스도인들, 등이 아닙니다.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백인, 흑인, 남미인, 흑 한인 일 뿐입니다.우리의 피부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향상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종족이나 계급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버지와 그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가 저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고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의 몸부림이 저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대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학대 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종족들의 치유는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P.T. 포사이트는 세계 제 일차 대전 때 글을 쓰는 신학자였습니다. 인종의 거룩과 연합과 치유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하는 거룩의 도덕적 확실성이, 마지막 주자가 나타날때, 인간의 연합을 믿는 모든 믿음의 유일한 기초이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세주로서 계신 그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구속주와 구속 안에 있는 인간의 연합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연합이며, 진화하는 경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 위기에 의한 것이고, 첫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번째 창조 안에 있는 것이며, 출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중생 외에는 인간의 퇴행 중에 우리에게 발 디딜 것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악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방이 아니라 치료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해석, 도덕적 화해, 거룩한 중생, 세계적 규모로 볼 때, 새로운 인류이다. 이 믿음이 교회 연합의 유일한 조건, 아니, 유일한 조성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종의 연합과 평화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조성자이다."

여러분은 인종적 연합과 평화의 열쇠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생각이나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하는 거룩이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물려 받은 전체 가족의 점화점입니다! 만일 제가 저의 종족을 저를 정의하는 것의 위치에 둔다면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제 사회적 신분으로부터 제 정체성을 이끌어 낸다면,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제 정체성을 위해 성별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정체성으로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이외의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여러분을 연합으로 나가도록 부르는 때, 여러분은 개인주의적이 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서로의 안녕을 위하여 공급하는 법들과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36:23 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이스라엘을 고소한 그런 것입니다. 국가적 징벌로 나아가게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 거룩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이웃의 불의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자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학대를 소홀히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가족 모두가 음식을 먹을 것을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들만 용서 되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공동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 거룩의 표준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박수치며 축하해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을 꺼안고 받아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위한 우리의 비범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의 광채를 주시하고 있는 세상으로 옮겨 놓습니다. 거룩이 대단한 음성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 IV. 어떻게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포사이트입니다.

"실제로 거룩해 지기 위해서 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다. 신약의 거룩을 함양하는 길은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해석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것은 거룩을 생성해 낼 수 밖에 없고, 그 거룩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조각내고 다같이 붙이거나, 혹은 우주적 과정에 맞추도록 엄청난 노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조절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상태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9:1-2 에서 말씀합니다.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의 가족의 성원들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위협감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인 사실인 이유는 거룩하신 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거룩의 광채를 옷입을 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 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해와 그 감동적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것의 비유입니다.

**첫째로**, 저는 그것을 해에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가 빛날 것을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해로 하여금 빛을 내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당연히 해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식물들이 햇빛으로부터 그들의 영양분을 얻어내는 법에 대해서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의 광채에 감사하기 위하여 광합성이 이해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해가 빛나면 해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십시오! 만일 해가 빛나지 않는다면 땅위의 모든 생명은 소멸 될 것입니다! 인간들조차도. 그러므로 인종과 계급의 선을 관통하여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속에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주의 거룩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 영광의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변화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빛을 발하고 지구 상 모든것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을 바꾸실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두번째로**, 그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사 6:5-8.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편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감동적인 아름다움은 여러분을 노출 시키지만 받아 줍니다. 5 절에 이사야는 자신이 으스스한 것을 알았습니다. 6 절, 7 절에 그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8 절에 그는 위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취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게 될 지 아십니까? 하나는, 여러분의 가면을 벗겨 낼 것입니다. 가면을 떨어 뜨릴 것입니다. 마지막

호빗 (Hobbit) 영화에 나오는 숲속의 요정들의 왕처럼, 다섯 군대의 전투에서, 난장이 왕 오크셴드(Oakenshield)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난장이들을 포기한 것 때문에 그를 경멸했을 때, 왕의 가면이 벗어졌고 그는 용의 불에 덴 그의 상흔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면들이 벗어지고 그것들이 벗어질 때 우리가 우리보다 크신 누군가의 임재 가운데 사랑받고 영접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P.T. 포사이트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없는 한, 우리는 곧 우리에게 관한 것에 양보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면 벗을 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변화 시키기에 충분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총회에서 있게 될 다가오는 대화들을 생각 할 때,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첫번째 간구가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는 법을 고려에 넣어야만 합니다. 회개가 적절한 것은 우리가 종족의 선들을 관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 가지 못하거나, 학대 받는 자들과 이민자들을 위해 일어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 하고 있는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의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별되어 남아 있으려고 노력하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주의와 계급주의 혹은 차별의 죄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신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오염시킨 지각을 거스려 싸우기 위하여 미국장로교 안에 남아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그의 이름에 돌려져야 합당한 찬양을 소출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거룩의 광채를 반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결론

이것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1. 우리에게 거룩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준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복음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3.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의 서원들로 갖고 있는 새 공동의 정체성을 껴안듯 받아드리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 아버지로부터 유래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대 받는 자를 보호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연합하여 살며, 서로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4. 거룩에 위협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그의 거룩의 광채를 쬐며, 아버지를 기리면서, 주를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해로부터 영양분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다양성을 갖고 주의 모든 아름다움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것이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케니 포스터

부목사

그레이스 교회 (미국장로교)

델라웨어 주 도버 시

크레이크 게리엇은 결혼하자마자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1980년에 벨티모어 도시 내에 있는 선교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 페이스 크리스찬 펠로우십이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개발에 초점을 두므로 은혜 충만한 제자들 세우는데 헌신된 다 인종적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미국장로교회를 개척했다. 크레이크는 목사로서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의 사역들은 학비 무료로 기초한 기독교 학교인 벨티모어 크리스찬 학교 (1993-2011)와 방과 후 과외 프로그램들을 두고 있는 펜 루시 액션 네트워크(1997-현재)을 포함했다. 크레이크는 버지니아 공대 토목대에서 학사 학위 (1976),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 (1982),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도시 선교로 목회학 박사 학위(1996)를 받았다. 그의 연구 논문은 성장하는 화해된 공동체들: 총제적 성장을 위하여 동원된 화해된 공동체들이었다. 크레이크와 그의 아내 마리아(천의 부활의 저자)는 다섯 자녀와 두 손자들을 두고 있다.

**연합: 미국장로교 안에 지수적 왕국 성장을 위한 복음의 가치**

2015년 11월에, 크레이크 게리엇

시편 133 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연합의 아름다움, 선함과 다정함을 우리에게 상기 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적적인 성장의 축복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3)

요한 칼빈(John Calvin)은 혈몬의 흙뻑 젖은 습기가 어떻게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시온 위에 내리는 길을 찾는데서 이 기적적인 연합의 은혜에 대해 언급합니다. "시온과 혈몬 산 위에 내리는 깨끗한 이슬이 거룩한 연합은 하나님 앞에 달콤한 향기일 뿐 만 아니라, 이슬이 땅을 적시고 수액과 신선함을 공급하면서, 좋은 산물들을 내는데 생산적임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더욱 엄밀하게 적용하셔서 어떻게 세상이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로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신 때 이 거룩한 연합으로의 부름의 결실을 약속하셨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우리의 사랑하는 미국장로교 부족이 우리 가운데 인종적으로 늘어 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성장 및 지속성과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연합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장로교를 두드러지게 백인 중심이고, 문화적으로 영어 중심적인 교회에서 우리 나라의 성장하고 있는 인구통계를 반영하는 다인종 교회로 이동하기 위한 변환은 신약의 동족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인종 중심의 안디옥 교회로의 인식체계 변환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기도, 끈질김과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항상 개혁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가 더욱 근면하게 전략적으로 이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 가도록 돕기 위하여 저는 신학적, 교회적, 찬양적으로 형식을 갖추게 될 수도 있는 세 가지 적용을 상정합니다.

**I. 신학적: 강력한 신학을 수용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변혁의 복음을 진전 시킬 용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신학을 수용합니까?** 우리는 축출 될 두려움이 없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토론회들과 안전한 장소들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또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선교적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장로교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도모하지만 신학에 약한 문화적 순응주의자 운동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로교와 개혁주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대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선교적 신학들의 무기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적 기록물 보관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cahistory.org/pca/race.html>). 포토맥 노회와 채사픽 노회는 민족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접수했고 민족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역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언급하면서 확인과 적용들의 진술을 인준했습니다 (즉, *포토맥 노회 내 인종적 다양성*, 2002).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의를 엄청나게 발전 시킨 분수령의 사건이었던 2002년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신학적으로 주도되고 확인된 회개와 연합의 결의안들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교회 역시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내 놓았습니다 (즉, *북미주의 변화하는 문화들 가운데서 사역하기*, 2005). 우리의 2015년 총회와 인종 문제들에 관한 추가 헌의안들이 있는 이래, 더 많은 연구와 글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료성과 격려들, 적용점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새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연구하고 확증한 아이디어들을 적용 할 능력과 수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적 질문들과 관련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실한 작품들의 막강한 본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재광하고, 강조하고 확증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있게 지켜 나갈 것인가를 궁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 명료성의 한 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 해석학 교수인 번 포이트레스 (Vern Poythress) 박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한 에베소서 2:14 을 언급하면서, 그는 연관되어 있던 문화적 장벽들의 크기를 강조 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종교적/문화적 차이가) 1 세기 사람들 사이에 가장 어려운 장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포이트레스는 추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 문화적 짐작들은 반드시 다 죽어야 한다. 그가 둘로 하나되게 하셨다고 말씀 할 때, 아무도 전과 똑같이 남아 있을 수 없다. 아무도 자기의 옛 성장과 옛 문화에 매달리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 아닌, 하나의 새 사람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 받거나 혹 그 반대로 될 것을 요구 받지 않았다. 둘 다 그들의 이전 문화적 정체성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이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갈등의 몸부림은 성경 역사의 쪽들을 꿰뚫고 흐른다.<sup>1</sup>

포이트레스는 계속하여 오늘날 인종차별주의의 근원과 해결책을 언급한다. "인종차별주의와 민족적 긴장들은 우상숭배, 자기 사랑과 편함 사랑, 돈과 권력 같은 근원적 죄들로 말미암는다. 내가 자란 양육의 편안함과 나오는 급진적으로 다른 그들이 자란 양육의 편안함.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가 승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가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sup>2</sup>

## II. 교회적: 다양한 지도력 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형제들 가운데 연합된 지도력 문화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대표들을 권고하여 우리의 구조들 안에 지혜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과 그들"의 의식을 가진 교회 문화를 몰아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와 우리를"만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현재 다수의 미국장로교 문화와 다른 사람들이 압도된 소수가 아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들로서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조성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6 장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진행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들이 사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강화시켜 갔던 건강한 교회 정치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도력의 권한의 근거가 유일하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주도적인 집단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하위 주도적인 집단의 필요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열 둘은 즉시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행 6:1). 그들은 그 교제 안의 불의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확장을 저해하는, 추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제자들은, 전체가 아니었다면 거의 대부분을 헬라파 집단에서 온 사람들로, 일곱 남자를 뽑았습니다. 기록된 모든 이름들은 헬라 이름입니다. 권한의 근거가 확대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행 6:7) 라고 했습니다.

<sup>1</sup> Vern Poythress, *Lessons from the N.T.; Lessons from the O.T.*, lecture presented as part of the "Racial Tensions Racial Reconciliation" at the Second Annual Conference on Contemporary Issue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PA., 9-11 March 1993.

<sup>2</sup> Ibid.

지도력의 근거를 확대하는 조치 안에 성경적 표준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후보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행 6:3). 이것은 지도력의 자질들이나 표준들을 약화시키는 피상적인 인종적 할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교회는 온정주의나 값싼 사회적 행동이라는 비난 위에 있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하여 신학적 연합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해 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의식적으로 그들 중 하위 문화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을 지지했습니다. 믿는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고, 다양한 하위 집단들의 문화들을 지지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어야 할 것은 초대 교회의 지혜가 여기 저기서 그들 "자신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변하고 행동하는 명분 상의 대표들을 찾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독 대표는 아무도 홀로 감당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대표적 지도력은 또 선한 의도를 가진 지배적 지도력 문화에 의해서 간과되거나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지혜는 집단으로 연대하여 더 큰 지도력 팀 안에 온전히 합병되고 상호의존적이 되었던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도자들의 세력, 팀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용하기 까다로운 원리는 아니지만, 그것은 의미심장한 힘의 이동, 혹은 더 정확히, 구속적 지도력 나눔을 결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신실한 지도력 조절의 열매를 보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존 프레임 (John Frame) 박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기능해야만 하는 방법으로 "이상적인 것"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다양한 지도자들로 된 팀으로서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에 적용됩니다.

이상적(타락 전 상태)인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의 신비를 함께 찾고, 서로 신뢰하며, 위대한 학문 체계 위에 평화롭게 협력하여, 각자가 어떤 한 개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의 몸통에 자신의 작은 조각을 기여하면서, 한 팀으로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중 어느 누구보다 폭 넓은 그를 아는 지식을 향해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묘하게 어떻게든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맞추게 합니다 (엡 4:15 이하 비교).<sup>3</sup>

### III. 찬양적: 연합된 예배의 영혼의 언어를 경험하십시오

####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꿈 예배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킵니까?*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 예배는 세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의 실체에 대한 가장 가치적인 증거 일 뿐만 아니라 (요 17),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예배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 대한 그의 권면에서 이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로마서 15:5-6, 9-10)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갈라져 있던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참아 주고 사랑하는 친구들처럼 마음 속으로 받아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계 5:9) 함께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정을 이루는 연합된 예배의 축제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연합된 예배의 성스러운 소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실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합된 예배를 위한 몸부림 중에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을 진전 시키기 위한 모본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7) 여기서 받은 감정적 단절을 허용하는 단순한 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받으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반려자로 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sup>3</sup> Frame,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 159

그러므로 예배의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선호함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의 연합의 우선 순위에 종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저는 문화적으로 저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향해 죽을 것을 요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을 위한 노력과 자신의 장사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혼의 예배를 반영하고 반향하는 왕국 추구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일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알 것이고 심지어 더 큰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된 예배는 단순히 현재 교회의 건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의 표지들을 찾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과 딸들을 부르는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연합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 임재는 증강되고 그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해 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한 언어를 사용하여 믿지 않는자가 예배하러 들어 왔을 때 외인처럼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고린도전서 14:25) 라고 말하며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라고 권면 할 때 다양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격려 속에 이 증거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 결론

우리의 늘어 가고 있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들, 부상하는 세대와 우리의 탈 기독교, 탈 근대, 탈 세속, 탈 모든 것의 세상은 추상적 신학으로 강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상 속에 명백하게 드러난 좋은 소식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연합의 영적이고 기능적 실천은 사람들을 강권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 가도록 하는 핵심적 복음의 살상입니다. (요한복음 17:20-26)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장로교가 이 영광스러운, 변혁적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교차로들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저해하는 옛 교회 유형들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아니면 이 거룩한 연합을 위한 신학, 교회론, 찬양학에 속한 어려운 작업을 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지도자적 교단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대상 12:32) 잇사갈 지파같이 되어 때를 붙잡읍시다.

### 부록: 연합을 강요하는 신학을 향하여 연합의 신조

웨스터민스터 목회학 박사 크레이크 게리웃의 1996 년 "성장하는 화해된 공동체들"에서

리차드 디리더(Richard DeRidder)는 교회가 미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을 화해하도록 돕는 신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탄식한다.

*이교도, 우상숭배자,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 건너에 있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 제자들을 사면에서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피차에 이웃들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같이 논다. 그들은 직장에서, 쇼핑 센터에서, 바닷가에서 만난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상에 흐터져 있는 이 중요한 때에, 고백 선언문들이 마땅히 가장 분명하게 말해야 할 곳에서 침묵하고 있다.<sup>4</sup>*

하비 칸(Harvey Conn)은 신조들은 단순한 정통성과 요리문답적 가르침에 대한 확언을 넘어 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조들이 추상적 개념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자신의 말들을 세상에 발설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가장 풍성한 봉사는 그들이 속한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속한 필요들을 언급하기 위하여 복음을 옮겨 놓는 그들의 기능 속에 들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신조들은 "전도적 선포들"이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에로의 초대들이 된다.<sup>5</sup>

그는 이 필요를 확언한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을 인용한다.

<sup>4</sup> DeRidder, Discipling The Nation, 213

<sup>5</sup> Conn,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241-246

오늘날을 위한 선교사의 신앙 고백은 모든 교리에서 유사하게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일일이 설명하여, 모든 경제 층,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sup>6</sup>

동시에 신조들은 신자들의 영적 변화와 세계관들을 위한 환경을 배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경적 원리들이 특정한 문화적 주제들을 언급하기 위하여 고양되고 해석되면서, 그것들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정보와 가치들을 분석 처리하도록 돕는 구속적 여과망이 된다. 이것에 관해, 그것들은 부상하는 지도자들을 배양하기 위한 신학적 기초를 조성하도록 돕는다. 훌륭한 신조들은 영적 진리가 모든 삶에 적용되고 불의와 악에 거스리는 생동적 저항이 표준이 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배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벨티모어 시에서 있었던 다음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한 선언은 연합을 지키고 연합의 원리들을 교회 사역 전반에 걸쳐 적용하기 위한 한 미국장로교 회중의 진지한 노력의 한 표현이다. 그것은 연합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축하 하는 하나의 헌신을 분명히 하고 표현한다. 동시에, 그것은 세상을 향해 절박한 인종적 정의와 화해의 중요성들에 관해 말한다. 여기서 그것은 밖에 있는 자들을 초대하여 예수와 그의 왕국 안에 정체성이 있는 보편적 교제의 부분이 되도록 한다. 그것은 회중의 계속되는 화해 대책 위원회에 참여했던 하나의 다문화적 미국장로교회 교인들 집단이 삼년 동안 헌신한 수고와 기도를 반영한다.

### 연합 선언

(2000년 5월 20일, 미국장로교,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채택함)

#### **연합 선언문 1: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위탁하고 계신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한 가족이 되도록,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백성으로 연합시키셨다는 것을 선언한다. 요 17:20-24; 20:17; 엡 2:13, 14; 19-22; 계 5:9, 10 골 3:11; 갈 3:26-29; 엡 4:4,5; 행 2:5-12, 고후 5:19.

#### **연합 선언문 2: 문화적 확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문화들에 말씀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 존엄과 우리의 다양한 문화들의 구별들을 확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와 은혜를 소통하기 위하여 문화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문화적 표현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들의 타락한 상태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평가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창 1:26,28; 2:15, 19; 롬 8:18-25; 롬 1:18-32; 롬 3:9-20; 계 21:24; 고전 9:19-23; 행 17:16, 22-31; 요 17:15-19; 마 5:27-43

#### **연합 선언문 3: 회개와 용서**

우리는 인종, 성별, 계급과 신앙에 근거한 엄청난 범법이 비극적이게도 세계사와 이 나라의 역사 전반에 걸쳐 한 인간 가족으로서 다같이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겨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회가 정의와 화해를 추구해 온 반면, 유감스럽게도 종종 적극적 지원이나 무관심으로 이 죄에 동참해 왔다. 우리는 진정한 화해는 회개, 용서와 정의 추구를 향한 결단이 없이는 실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 느 1:4-11; 단 9:4-19; 엡 4:1-6, 32; 빌 2:1-11; 행 6:1-7

#### **연합 선언문 4: 은혜의 필요성**

<sup>6</sup> Ibid., 244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다. 그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들처럼 사랑할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며,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한 가족으로서 견인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유일한 수단을 공급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참된 연합을 위한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시고, 우리를 매일의 회개, 기도와 말씀의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선언한다. 마 22:37-40; 엡 3:14-19; 4:1-5; 5:1,2,15-21; 6:10,11; 히 2:14,15; 뱀전 4:19

#### **연합 선언문 5: 문화적 자각**

우리는, 우리가 다문화적 도시와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우리 자신의 문화적 편견들과 선입관들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문화적 자각과 민감성을 습득 할 것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한다. 우리는 문화적 자각이 우리가 지도자들을 계발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전도와 제자훈련을 위한 몸을 구비 시키고, 정의와 공동체 개발을 촉진 시키는 길에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고전 9:19-23, 행 15:19-21; 행 17:16-34; 행 26:28,29; 롬 15:1-4

#### **연합 선언문 6: 지도력**

우리는 우리 교회와 사역의 지도력 안에서 세상 앞에 있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믿는자들의 화해를 표준화 하는 것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한다. 우리는 교인됨, 교회의 연합, 영적 책임, 문화적 다양성의 혜택, 분담된 종의 지도력, 교차 문화 기술들, 전략적 봉사, 건전한 신학, 경건한 성품, 영적 갱신과 부상하는 지도자들을 제자화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귀하게 평가하는 화해된 지도력을 촉진한다. 행 6:1-7; 13:1-3; 갈 2:2; 사 56:1-8; 계 21:24

#### **연합 선언문 7: 예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한 지역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 하기 위해 사역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다양한 문화들에서 나오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있는 헌신의 표현들을 드리기 위해 사역한다. 그러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 믿는자의 건덕 세움, 구도자 환영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탁월함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롬 15:5-11; 사 19:23; 습 3:9; 시 22:27; 계 7:9,10; 계 21:24

#### **연합 선언문 8: 전도**

우리는 성경적 온전함을 유지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수단들을 통하여 나뉘는 특정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통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다문화적 한 몸으로 함께 사역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헌신한다. 고전 9:19-23; 10:33; 마 20:26-28; 롬 1:14; 고후 4:5; 잠 11:30; 롬 11:14; 뱀전 3:1

#### **연합 선언문 9: 제자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목적으로 피차 제자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것을, 평안의 매는 줄로, 다양한 믿는자들과 역사적으로 구별된 문화들 속에 내주 하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엡 2:11-22; 엡 4:1-4;11-16; 빌 2:1-5; 골 3:5-14; 요 17:23; 롬 14:17-19; 고전 1:10; 고후 13:11

#### **연합 선언문 10: 정의와 공동체 개발**

우리는 교회가 구체적인 구제와 정의의 행위들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좋은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적 임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 이 좋은 소식은 존엄을 확인하고, 희망적 환경을 배양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봉사로 회복 시킨다. 믹 6:8; 눅 4:18,19; 행 6:1-7; 갈 2:10; 약 2:1-9

배리 헨닝은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의 새 도시 교제 [교회]의 창립 목사이다. 이 교회는 1992 이래 북 세인트 루이스와 유니버시티 시티의 도시 지역들에서 거하면서서 화해와 정의의 주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다. 세인트 루이스의 새 도시 [교회]는 대략 20 개의 다른 나라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회중이고 직업 훈련, 이민자 숙박, 과외, 의료적 돌봄, 집 수리, 대학생 왕국 제자훈련, 법률 봉사, 다양성 있는 기독교 학교와 입양 및 양자 돌봄의 광범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 새 도시 [교회]는 케냐, 콩고 민주 공화국, 토고와 버마에서 온 능동적인 교회/이사 참여로 왕국 회복 협회라고 불리는 국제 선교 기관을 연합으로 형성해 왔다. 우리는 또 파키스탄, 인디아, 혼두라스, 짐바브웨와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한다. 배리와 그의 아내 앤은 세인트 루이스 안에 있는 한 도시 내 공동체에서 살고 있고 네 결혼한 자녀들과 스무 명의 손자들을 두고 있다.

친애하는 미국장로교의 어른신들과 형제들에게

2010 년에 우리 교단 지도자들 중 몇 분이 화해와 정의의 주제들에 연류되어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미주의 다양한 문화들에 미치는 일이 좀 더 성공적이었다면 미국장로교가 어떻게 보일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보기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어디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 위에 세우며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다음은 이 입장을 위해 약간의 편집을 가미한 저의 회신입니다. 저는 이제 2015 년 총회에서 인종차별주의에 관한 개인적 결의안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질문들 중 하나인, 인종적 화해의 영역에서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새로운 순종이 요구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의 일부로 이 회신을 고려해 보시도록 겸손하게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미국장로교 안에 있는 믿는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말해 진것임을 알아 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믿고 또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피차에게 "나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또 이 영역들에서 성숙해야 할 제 자신의 필요에 대한 예민한 경각심과 우리가 사모하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으로 말해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비판적이 되거나 단순히 누구든 죄책감을 가지고 매질 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발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젠가, 우리가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하는 이 화해와 정의의 주제들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뒀이 없이 진지하고, 심각한 자기 분석을 하는 일에 더 나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제자화 과정은 바로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위한 필요는 실제입니다. 그 조치들을 이행하는 과정은 즐겁고도 도전적이 될 것이며 많은 굴곡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진짜 움직임이 있는 한 모두 꿩꿩합니다.

## 화해 대 다양성을 위한 필요

**요 17:20-22**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는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라, 요한복음 17, 고린도전서 1, 골로새서 1, 베드로전서 2, 요한일서 1 (등)에서 나오는 필요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예수님이 헌신 할 것을 위해 기도하신 교회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띤 화해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토론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족적 혹은 인종적 화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 화해입니다. 대학교들과 작업장들은 종종 다양합니다만, 반드시 화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로서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깊숙한 화해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 미국장로교는 다양합니다만, 화해를 실천적으로, 깊숙히 살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된 화해는 우리가 서로 깊숙히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되도록 한 참된 인류를 반영하는 것을 배우는 곳에서 서로 몸으로 껴 안는 실제적 수용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피차 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아이들을 소중히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종족적이고 사회 경제적 차이들을 필요로 하고 겸손히 그것들로부터 배우며 같은 성령과 같은 가족에서 나오는 모든 다른 은사들과 기능들을 가진 한 몸의 동등한 지체들로서 피차 하나님의 형상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고, 피차를 위하여 은혜를 발휘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 자신들 위에 피차를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주 매우 결혼한 것과 같고 한 가족이 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화해된 교회의 가장 훌륭한 형상들 중 하나로서 사용합니다. 또 나머지 사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데 직접적인 가족의 언어를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단 전체에 걸쳐 지역 교회들, 노회들, 교단적 구조들과 기관들에 충격을 주는 실제적 화해가 없이 어느 정도 다양한 교단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미 해 오고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안에 어느 정도의 분량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서 범주가 종족적인 것과 사회 경제적 것 둘 다인 의도적 화해에로의 깊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주제에 손을 댈 수 없는 과거나 현재의 인종차별주의의 죄들을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있는 화해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구조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하는 현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깊은 회개가 점차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곳은 현재 우리의 포도주 부대 안에 일어날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교단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다 종족적, 다 사회 경제적 지도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다 종족, 다 사회 경제적 예배와 왕국 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향하여 겸손하게 함께 역사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지역 교회들은 점점 더 그들의 회원됨과 지도력 모두 다 종족적이고 다 사회 경제적으로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 집사들과 목사들은, 빈부 모두, 흑인, 백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남미인, 본토 인디안 공동체들로부터 세워 질 것이고, 지역 교회의 예배, 제자도, 공동체 사역들 등도 마찬가지로 그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 노회들은 다 종족적이고 다 사회 경제적인 강도사 인허 및 안수 위원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노회와 교단 차원 모두에 있는 다 종족적/사회 경제적 국내(MNA) 및 해외(MTW) 선교위원회들은 하나의 화해된 팀으로서 비전을 만들고 수행 결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단의 "기관 팀들"의 "조정자들"은 비영국계가 될 것입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와 커버넌트 대학교는 의도적으로 다수의 세계 종족 집단들로부터 직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와 신학교의 "교장들"은, 순차적으로, 영국계 공동체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 다른 종족적 공동체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단의 잡지들과 서적과 주일학교 교재는 바깥 멀어 붙이는 이민자들, 난민들, 가난한 자들의 주제들과 교회들과 교단 안의 화해를 포함 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도적 문화의 관점들/우려들로부터 돌아 서면서, 그러나 비판적으로, 추가된 주도적인 문화의 왜곡 시킴 없이 그것들에 의해 묘사되고 언급된, 새로운 주제들을 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침을 베푸는 위치에 있어 온 것 대신에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장로교가 그런 비전을 수용하고 이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 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거기에 이르도록 하려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장로교, 전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실함과 교단 내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의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교단 내 구체 사역과 종족적 다양성의 증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다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심지어는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아무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백인 중상층 체계 안에 기반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중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들과 교단 구조들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 요소 중 얼마가 돌과귀를 내기 거의 불가능한 격자망을 초래한 신학적 엄폐물로 덮여진 문화적 기독교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적 혼돈과 방불한 것이 아니면 이것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체계 희망을 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설교 말씀과 성령의 확신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함께, 회개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움직여 나가도록 필요한 천재지변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 1:8 은 행 8:1 을 통해서 실현 되었습니다. 교회는 대체로 아프리카와 중동 정반에 걸쳐 있는 최근 천재지변적 사건들을 포함하여 교회사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고를 염두에 두고, 회개에 기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또 실제적으로 의미심장한 새로운 순종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감수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개혁하는) 신학적 변화와 (항상 새 포도주부대를 창조하기 원하는)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들에 헌신 둘 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적 책무로서 신학적/실천적 화해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 만일 우리가 화해로의 부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동시에 친히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구비 시켜 주실 그 교회의 근본적이고 도덕적이고 언약적인 책무로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화해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거운 문화적 눈가리개들과 완전 백인, 서구, 중산층, 주도적 문화 교회의 관점의 조망들과 역학들로 된 마개를 하고 성서들을 읽을 수 있고, 철천지 원수들과 완전히 대적하는 세계관들과 문화들을 포함하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 예수의 주되심 아래 있던 지역 회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사랑으로 서로를 수용하라고 부름을 받았던 신약 서신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초대 교회가 한 신학의 역사적 실체들을 무시하면서,우리가 이 성서들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족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관점은 우리가 민감해 하는 것과 성경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것에 형태를 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문화적 관점이 좁으면 좁을 수록, 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방의 실천적 화해를 위한 부름과 필요를 "가로 막기"가 더 쉽습니다.
- 현재, 우리의 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의 필요에 압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해로의 헌신은 ㄱ) 그들이 진실한 교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또 ㄴ) 그들의 적법하게 바쁘고, 뻑뻑한 어떤 것들과 때로는 이미 엉망이된 결혼들, 가끔은 일 중독, 또 그렇지 않으면 몸씨름을 하고 있는 회중에게 그 시간 없이 없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회중은 또 때로, 이 평가 속에 제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이 세상 대부분을 위한 짐을 지어 나르는 백인 남성 중산층의 짐을 지어 나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왕국의 큰 자유는 정확하게 자신에게 죽고 우리의 안전들을 옆으로 밀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들을 취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표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진난만하게 화해와 정의를 수용하는 것은 쉽거나 우리 교회들 안의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죄와의 몸부림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는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조망하도록 돕습니다. 언약의 축복으로서 부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쌓아 놓는 것 (디모데전서 6), 하나님의 의/정의를 열방에 가져오기 위해 회중의 모든 사람이 서령의 비전과 은사들을 필요로 하는 것 (사도행전 2), 또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려 놓도록 인도하는 의미심장한 사역을 위하여 몸을 깊이 있게 구비 시키는 것 (로마서 8, 엡 4),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하며 한 문화에 묶이지 않도록 의도된 예배 상황 (요한복음 4), 말하자면, 삶의 모든 측면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도록 구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경이 실제로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소명"인, 교육과 직업의 목적과 초점 (에베소서 1), 이미 시작한 영원한 의와 화해의 왕국에 묶여 있는 목숨 건 결정들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재림시 이 다가오는 왕국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골로새서 1, 고린도전서 15), 세상 문제들의 어둠이 빛의 왕국을 이기지 못 할 것이라고 하는 수반하는 확신,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화해와 정의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초점과 헌신의 결핍은 우리의 원기가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은, 만일 가난한 사람을 향하거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점차적으로 "나는 지금 나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의 여러 다른 판이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의 어떤 형태 혹은 다른 형태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화해에 초점 맞추기를 거절하는 모든 교회의 자연스러운 소산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왕국의 좋은 소식을 신학적/실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6: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진정한 화해 없이 하나의 교회로서 기능하도록 우리에게 신학적 논리를 공급해온 대부분의 기여 요소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수 문화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관점에 맞도록 재정의 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오직 개인적 구원과 정의와만 융합 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왕국과 왕국의 정의에 대한 구절들을 단순히 그리고 오직 개인적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적인 정의의 위치에 서는 것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죄인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참조로서만 읽도록 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공표와 땅 위에 있는 열방에게 (이사야 42) 그의 (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의/의를 가져다 주며 그의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 온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해 주는 (이사야 61, 누가복음 4) 메시아의 기름부음을 사실 오직 개인적이고, 개인화된 구원의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정의와 개인화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에서 인종차별주의와 학대와 경제적 탐욕의 문화적 죄들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예수와 사도들의 생활 방식을 실행하는 것 없이 개인적인 제자 훈련과 성경공부의 지적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문화를 왕국으로 들어 오도록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는 것이 주도적 문화의 일부로서의 백인, 서구 교회의 역사입니다. 백인, 서구 기독교의 역사가, 종교 개혁과 후에 미국의 창설기를 포함하여, 다수 문화 세력 구조들과 얽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에 걸려 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실용적 현실로서 "교회의 자연적 종족 분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용해 왔습니다. 화란 개혁주의, 독일의 루터교, 불란서의 천주교, 스코트랜드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이런 나라 집단들 내에 있는 문화적 세력의 유혹이 이 실상을 합리화 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모본으로서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찬양하는 개신교 전통에 있는 인종 중심, 주도권 문화 교회의 최고 표현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생애 속에 배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모본이 너무 자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의 실행 정의와 함께, 주로, 예술, 과학, 정치, 경제 구조들과 교육 제도들을 포함하는 체제와 문화 구조들을 통하여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들에 초점이 맞춰진, 나름 최고의 표현 속에 버려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확실하게 구속 받도록 의도된 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 받는 것들을 불러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황당하게 하는 원천이 되게 하신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상실되었습니다. 예수와 사도들과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또, 심지어는 미국 내 이민자 교회들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들은 우리 교단의 구조들과 갈망들에 맞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서들이 가난하고 학대받고 소외된 소수의 관점에서 읽히면, (그들의 눈에) 분명하고 극적인 표현과 심지어 예수와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삶과 사역 속에 있던 왕국의 능력의 주문이, [다름아닌] 메시아의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가, 차별없이, 땅의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걸음으로, 종족이나 사회적 신분과 관계 없이,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동등한 일원으로 만들면서, 특별하게 정한 시간의 추이를 따라, 그 모든 구조들을 천천히 맞서고, 헐어 내리고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수용적 사랑과 순종의 부수적 효과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그 체제들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일에 지나치도록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겸손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때에 일들의 모양을 변화시킬, 바로 그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격은 사실 자신들의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하고 학대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다스림의 목적과 약속은 그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왕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대자와 학대 받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만, 이 메시아의 왕국의 다스림은 그것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난한 자, 과부, 아버지가 없는 자, 이민자와 학대 받는 자들을 위한 의도적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속되고 더욱 더 분열된 교회들은 지난 50(+/-)년이 넘게, 종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두, 많은 우리의 회중 속에 그저 종족, 사회, 경제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몰두하는 기독교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위기 속에 있는 부부를 상담하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두 사람은 단순히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추구하는 미국장로교회 내의 모든 종족 집단들이 그러한 왕국 비전에 헌신되지 않는 한, 저는 진짜 화해가 성취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학대 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힘의 초점을 맞추는 언약적 책무로서 깊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들임 없이 그들 나름의 왕국 안전들을 위하여 다투는 다른 집단들 중 가운데 깊은, 장기적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더욱 더 깊이 참호에 몸을 숨기는 분열의 비법입니다. 최종 결과는, "최선의 경우"의 줄거리가 현재 우리가 미국장로교 안에 가지고 있는, "분리되지만 동등한" [그러나] 주도적 집단이 안전들을 통제하는 플레시 (Plessy) 대 퍼거슨 (Ferguson) 교회 문화입니다. 이중 어떤 것도 아주 오래 갈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초대 교회의 성경적 그림이 당연히 우리를 도와서 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인, 흑인, 백인, 남미인, 아시아인, 본토 인디언, 공교육을 받은 자와 거리 교육을 받은 자들이 모두 다 한 하나님의 가족의 성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상한자와 버림받은 자와 피차를 끊임없이 수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또 이 동일한 사랑을 세상과,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보여주는, 동일한 희생과 봉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교만과 자기 보호가 아니라면 그러한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화해의 사랑의 실천적이고 사실적 표현으로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의 좋은 소식은, 만일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게 하신 것들을 한다면, 진짜 변화가, 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도, 항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종족 집단에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환영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의도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사역들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할당의 흐름은 반드시 그들의 방향을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뜻에서, 이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는 많은 현실들이 있고, 저는 우리 교단 내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많은 우리 교회들 혹은 노회들 혹은 교단적 세력의 구조들을 변화 시키지 못해 왔습니다.
- 용서를 구하는 것에 추가하여, (제 자신도 아주 많이 포함됨) 미국장로교 내의 백인 주도적 문화의 지도자들인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나름 이 화해가 성취되도록 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백인 지도력은, 어느 수준이든, 스스로 어떻게 이 화해를 해야 할 것인지 효과적으로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가부장주의의 본질적 특성은 다른 집단으로부의 동등한 입력 없이 이 주제들을 시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우리 교회들이 변화하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 난민들과 우리 문화 속에 다른 오래 지내온 소수 집단들이 도시 주변의 공동체 속으로 계속 몰려 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피차 동업하는 것을 배우면서 더 부요하고 온전한 왕국의 초점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입니다.
- 우리는 우리가 이미 우리 미국장로교 내에 갖고 있는 비 영국계, 비 중상층 섭외자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학 훈련부터, 예배 형태, 당회, 집사 및 강도 장로의 지도력, 다른 다양하고 가난한 공동체들에게 미치기 위하여 힘을 내고 바깥을 향하여 초점을 맞춘 사역들의 개발, 노회와 교단의 구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고하도록 우리를 도울 다른 자원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반드시 왕국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낮은 상황들을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문화와 아주 많은 우리 교회들의 모범은 교육적이고 재정적 힘, 개인적 효율성, 과제 성취와 때로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한 변화의 대행자들과 있다고 하는 오히려 천진난만한 관념에 속한 것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상당한 시간 대부분 우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몇 문장 안에 "국내의 표본"과 "세계적 충격"에 대한 질문들로 돌아감이 없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관해 거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표본과 가르침은 왕국은 낮은 상황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알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의 편지 메시지 속에 가장 불쌍한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것은 가장 많은 문화적 힘과 가장 큰 가림막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하신다는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항상 흐르고 있고 (신 17:14 이하, 20:1 이하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구약의 모든 경한한 지도자들), 그리스도와 (빌 2 및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 사도들과 (특별히 고전 4:1 이하와 4:16 을 보십시오), 교회의 (고전 1:26 이하) 삶 속의 왕국의 완전한 표현으로 흘러 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낮고, 의존적인 조건들 속으로 들어 가도록 지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백성이었는 것의 주제와, 그리고, 왕국의 완전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을 때, 교회가 가난한 자와 학대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진 왕국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 우리가, 문화적 세력의 위치에서, 주도적 문화의 부분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소수 인종들에게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부장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낮은 상황들을 수용함으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닮아야 할 필요를 갖게 하는 다른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이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실제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고전 1:10 이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제시된 모본으로 또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아 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이 품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실천적으로 수용할 어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언제 대 규모의 화해를 경험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부장주의가 항상 우리에게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함축된 것들은 아주 혁명적이고 (우리의 현재 체계들에는 천재지변적)입니다. 우리의 대학들, 신학교들, 교회 건물들, 목사의 사례비들, 선교사의 후원 수준들, 교회 개척 전략들과 세계 선교를 위한 시도들 모두를 바꿔서, 가난한 자를 우리의 표준과 편안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찾는 대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움직여 가는 것을 더 많이 포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 우리는 미국 내에 있는 또 밖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 힘과 가부장주의의 서구 문화적 폐해들을 가진 자발적 음모자로 보여졌습니다. 이 낮고, 화해된 위치에 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그런 문화적 폐해들을 거스리는 선지자적 목소리, 또 우리의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의 왕국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의와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해된 열방으로부터 들려 오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진정으로 수용되는 이 변화들로 인해, 깊숙한 화해가 배양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진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화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내신 것을 위해 증언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증학으로 우리의 작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배리 헨닝

세인트 루이스 새 도시 교제 [교회]



마이크 히긴스는 2015년부터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 소재 남부 도시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마이크는 커버넌트 신학교에 다녔고, 1996년에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2011년에 학생 처장으로 커버넌트 신학교로 돌아가기 전에는 테네시 주 차타누가시와 조지아 주 아틀란타 시에서 미국장로교 목사로 섬겼다. 그는 또, 전에 펜타곤에 배속되었던, 은퇴한 군복(COL)이기도 하다. 2012년 5월에, 마이크는 커버넌트로부터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위의 초점은 "미국장로교 내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개척자들의 경험들"이었다. 그는 레니와 결혼 한지 36년이 되었고, 두 딸, 마리아와 미셸과 두 손자들, 모세와 마티를 두고 있다.

## 정의는 소경이 아닙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 저는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성당에서 톰 이글튼의 연방정부 건물까지의 행진을 포함했던 세인트 루이스 목사의 시민 불복종에 참여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연방 정부 건물 계단 위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연합과 연대의 과시의 하나로 진행 시키고 동부 미조리를 위한 미국 변호사가 섬기고 봉사하기로 선언을 마친 모든 사람들이 체제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도록 더 잘 구비함 받게 될 것을 반드시 보장 해 주는 변화들을 향해 앞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방 경찰과 세인트 루이스 시 경찰서가 화학 기체들을 가지고 평화로운 무리들을 위협했을 때,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바라면서, 우리 중 얼마나 그 자리에서 질질 끌려 갈 것, 시선을 돌리는 혹은 적어도 그런 유형의 분산 전술을 지연 시키는 한 방법으로 테이저 총과/또는 수갑에 채일 것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우리의 첫 금요 기도 모임의 결론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광고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모임에서 체포 가능성이 토론되었지만, 저의 체포는 광고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의 희망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함께, 우리가 체포되지는 않으나, 연관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적은 대로 어느 정도, 우리 목소리가 들려졌다고 믿지만, 저는 우리가 반드시 계속하여 말하고, 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이 언젠가 똑같다면 그 것을 다 다시 할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저 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 밖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무언가가 차세대를 인종차별주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인종차별주의자들로 자라게 되는 것을 막게 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미국과 땅 위의 그 많은 곳에 있는 정의는 소경이 아닙니다. 만일 정의가 소경이었다면, 그것은 눈가리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종족 집단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어느 쪽 궤도들 위에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가리개가 없는 정의는 그것을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자들과 전과자들을 해고 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함을 수용하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백인 남자들이, 전적으로 피부의 명암에 기초하여, 유색인종들은 결코 동등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든 레이스(Race)라고 불리는 현상을 꾸며냈을 때 이 나라에서 눈가리개가 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누군가가 그것이 눈가리개를 갖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번 월요일에 그것이 눈가리개를 다시 묶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진을 했습니다.

헌법은 미국 시민들이 죄가 있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만, 한 흑인 남자로서 저는 마치 제가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저의 무죄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긴장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범주들 안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심하고, 냉소적이며 비판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위선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 서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들에게 달려가 증언하고, 권위자들이 이 위선을 자신들에게서도 찾으려 요구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피거슨이나 주변을 싸고 있는 토론들에 대해 듣는 것에 싫증이 난 것을 압니다. 저는 종족적 구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관해 행진하는 것, 그것에 관해 회합하는 것, 그것에 대해 토론하기 위하여 무대들 위에 앉는 것에 아주 싫증이 납니다만, 매우 많은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도시들이 그들의 현재 상태로 발전해 왔는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되었는지,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있거나, 자주 잊어 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북 세인트 루이스에서 자랐고 어떻게



그것이 여기에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빌, 파운틴 파크와 약간의 다른 이웃들)의 광대한 북 세인트 루이스의 지역이, 많은 중산층 세대들의 비율과 함께, 인종적으로 다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 가족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많은 백인 교회들, 특히 백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떠났습니다. 그것은 세인트 루이스 서편으로의 확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흑인과 황인의 저변층을 위하여 "분리와 불평등"의 사회 정의의 표준들을 가지고 행복해 하여 보이는 한 나라에서 과도하게 분열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제 조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처럼 보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인종차별주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혹은 만일 제 어리석은 조치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게도 역시 어리석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주님을 이 역량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의 친구로 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같이 앉을 때, 우리는 미국 교회의 역사적 분리주의를 허물어 내리는 것이고, 참된 연합을 지향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장로들이 6월에 주장한 것처럼 "인종차별주의를 그 모든 형태로부터 제거"할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 속에 있는 분리를 함께 공격합시다. 서로의 집들 안에 다같이 앉으십시오. 교통 신호에 걸려 있는 동안 저와 함께 앉으십시오. 도시 북쪽에 있는 립 섉(Rib Shack)에서 저와 함께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이 흑인 목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저와 함께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 그 많은 사람들이 백인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할 때 저와 함께 앉으십시오.

저는 우리 나라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주어진 어떤 의무적 숙제들 보다는 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저는 우리가 더 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얼마나 싫증이 나게 되든 혹 불편하게 되든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가 포기 할 수 없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행진하고, 기도하고, 찬송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정의이신, 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눈멀거나 눈가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안의 정의가 편견으로부터의 약간의 인위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눈가림을 하고 있는 반면, 참 정의는 우리 모두의 다름들을 보고, 모든 특징들을 분별하며, 여전히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볼 것이고, 마침내 바르게 볼 것입니다.

마이크 히긴스,

커버넌트 신학교 학생 처장

남부 도시 교회 담임 목사

어윈 인스는 매릴랜드 주 컬럼비아 시 소재 희망의 도시 장로교회 목사로서 섬기고 있다. 그의 사역의 열정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서 흘러 나오는 구속의 인종적 연합을 추구하면서 지역 교회가 그 교회가 있는 장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우리 교단이 우리의 언약 신학적 헌신에 함축된 의미들을 살아 내려고 애쓸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르신들과 형제들에게,

교회 개척은 척박한 사업입니다. 모든 개척 교회 목회자는 그들의 교회가 번창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그가 교회가 번창할 지 안할 지 궁금해 하지 않을 때 이런 종류의 선교 사역의 삶에는 여러 고비점 혹은 주기들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속할까 안할까를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은 쟁반에 금 사과" (잠언 25:11)가 꼭 필요한 때에 그에게 떠 올랐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이 적어도 한동안은 더 계속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희망의 도시가 해 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 개척의 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 교회의 사랑스런 여인이 제게 이 말들을 했습니다. 그녀는 백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동에 속한 혈통입니다. 그들은 친자인 두 자녀들과, 입양한 두 아프리카계 미국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다수 백인 미국장로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왜 그녀가 그들의 가족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구속적 종족 연합의 명령을 살아 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나누고 있는 종족의 선들을 통관하는 재 연합과 화해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언약 신학적 헌신의 자연스러운 성취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 44 차 총회에서 우리에게 위탁되었던 민권 회상에 대한 개인적 결의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많습니니다. 화해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죄와 죄의 쓴 열매에 대하여 정직하도록 우리를 밀어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수 백인의 교단입니까? 왜 우리는, 노예 제도와 인종차별주의를 둘러싼 과거의 결의안들과 공식적인 선언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문화적 포로됨으로부터 탈출하려면 필요한 유형의 변화들을 수용하지 않고, 만족해 오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들의 수가 총 숫자의 1 퍼센트를 겨우 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또 다른 소수인종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심지어는 미국장로교의 교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합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들에 의한 행동들과, 교회들에 속한 태도들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선택들을 포함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는 그 몇 안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장로교 목사들 중 하나이고, 이 교단에 헌신하고 이 교단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권 운동 시절에 명백했던 미국장로교회 역사의 부정적 측면들이 그런 질문들 하나 하나에 대한 대답 속에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미국장로교단(PCUS)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라고 선언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의 스티븐 R. 헤이스(Stephen R. Hayes)의 작품, *마지막 분리된 시간* (*The Last Segregated Hour*)과 강도 장로 선 마이클 루카스(Sean Michael Lucas)가 앞으로 미국장로교 교회사에 관해 낼 책은 우리가 범했던 특유의 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거나 말거나, 많은 소수 인종들이 갖고 있는 미국장로교는 백인, 사회적으로 보수적, 우익, 인종차별주의자의 교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 역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2007 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이름을 희망의 도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넘어야 될 첫 번째 언덕이 "장로교"의 언덕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공식적으로, 희망의 도시 장로교회 입니다. 장로교의 언덕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 보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또 정직하게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알라바마 주 모빌 시에서 있게 될 제 44 차 총회가 우리 교단을 위한 사도행전 15 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 보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 정직하게 참여할 것을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화,

어윈 L 인스 주니어  
매릴랜드 주, 컬럼비아 시에서  
2015 년 10 월 17 일

랜디 나보스는 뉴저지 주 뉴와 시내에서, 도시와 시민들에게 강한 헌신을 했던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 랜디는 새 도시 차타누가 [교회]의 명예 목사이고 지금은, 새 도시 연락망의 조정자 뿐만 아니라, 국내선교부를 위하여 도시와 구제 사역들 조정자로서, 섬기고 있다. 랜디는 세인트 루이스 소재 커버넌트 신학교 졸업생이고 (목회학 석사), 조지아 주립대학의 도시생활대학과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도시 사회학과 도시 사역을 학위 과정으로 마쳤다. 그와 그의 아내 요앤은 네 자녀들을 두고 있다.

### 회개와 정의를 위한 도발

제가 이 글을 이런 태도로 알리는 이유는 제가, 미국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작위나 부작위의 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 시키고 있는 모든 불의를 위해 회개하도록 도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24)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그 "격려하며"의 얼마가, 우리가 인종적, 종족적, 경제적 또 사회적 선들을 통관하여 서로 어떻게 대해 왔고 계속하여 피차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과 맞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 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 안에 변화의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겸손히 또 정직하게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대화들에게 장애들이 (우리 교단과 그리스도의 던 큰 몸 안에) 있는데 저는 그것들 중 얼마가 의식적으로 실감되지 않고 있다고 짐작합니다. 이것의 얼마는, 동정심을 가지고 듣는 것으로부터 어떻든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미국인들로서의 영광 혹은 자유를 제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쪽으로 밀어내는 전문가들, 대담 진행자들, 또 인터넷 이야기들과 의견들을 우리가 식별력 없이 받아드림으로 수용하고 (또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정치적 풍토 및 강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주의의 정치적 견해 및 안건들과 동의어로 만들어 왔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큰 말이고 어쩌면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그래서 어쩌면 전혀 충분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무오함과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대속적 속죄를 값주고 산 피를 설교 할 필요성을 믿으며, 그러므로 개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 보수주의자 입니다. 제가 성서의 가르침과 추론이 유산은 (어머니의 육체적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일 때) 살인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의 성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죄악되고 참된 동성애 결혼 같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결과로 제가 급진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제한된 정부, 혹은 막대한 방위 예산, 혹은 사전 외교 없이 폭격하는 것에 헌신되었다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미국은 옳고, 모든 민주당원들은 모든 것에 대해 악하고 잘못되었고, 혹 그들의 옳을 때에는 반드시 숨은 동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제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자들과 지엽인화 되고 학대 받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갖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회개에 장애물들을 확인해 낸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유산의 어떤 초상들은 진흙 발을 갖고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전직 타락을 가르치는 교단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선조들 및 설립자들의 인종주의자관에 대한, 그들의 인종적으로 고안된 성서 주석에 대한 그들의 어떤 것과, 노예 제도와 분리주의 모두의 방어될 수 없고 불의한 것의 단호한 방어를 비판하는 것은 해학적인 뿐만 아니라 추문거리로 보입니다.

우리의 소경됨의 위선은, 우리 설립자들 중 얼마가 분리주의를 지지하고 방어하거나 혹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한 것에 대해 우리 교단이 회개해야 한다는 요청을 토론하는 동안, 결의안의 발제자들이 마태복음 18에서 그들이 하도록 요청했을 것처럼 그 설립자들에게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하여 질책을 받은 최근의 한 위원회의 몇몇 회원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얼마의 사람들이 그 설립자들에게 노 형제들을 대하듯이 그들의 공적인, 출판된, 또 수치스러운 견해들에 대해 탄원하기 위하여 갈 땀, 그것은 고통에 있는 이 존경 받는 인물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난 받지 않은 공적인 견해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면 안되고,

얼마나 부드럽게 하든 관계없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맞부딪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가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의 중심에 와 닿는 질문, 인종차별주의가 죄입니까? 사람에 대한 증오가 죄입니까? 사람의 집단에 대한 증오가 죄입니까, 혹은 그들을 증오스러운 방법들로 대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과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보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의식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죄입니까?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죄입니까? 필요가 바로 우리 앞에 있을 때, 긍휼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니면, 선행을 할 기회를 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죄입니까? 약하고 도움이 없는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혹은 어떤 사람들이 도살 당하도록 끌려 갈 때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리라" (잠 24:12)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인종차별주의와 (직접적 음성 의견이거나 현상 유지의 침묵적 지지거나) 그것의 법률상 혹 사실상 보호가 만일 그런 열정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지지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남아프리카와 우리의 미국 남부에 있는 짐 크로우(Jim Crow) 인종 차별정책, 혹 우리 나라 다른 지역들에 있는 분리주의와 차별주의가 교회들과 신학적 변증론자들에 의해 보강 지탱되었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무해한 무지(들)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이 체계있는 인종적 철학들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계속 교육, 고용, 혹 건강의 돌봄 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사람들에게서 재산과 존엄과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감옥에 가두었고, 때로는, 단순히 그들의 피부의 색깔 때문에, 그들 모두를 살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운데의 몇몇 더 깊은 영적 문제들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누군가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신속히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회개의 태도는 성도들에게 불변의 것으로 보입니다. 겸손과 기쁨에 찬 믿음과 달콤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소망은 회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제거 할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집요하고 완고한 자기 의만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것은 확실히 옳고 선합니다. 또, 쉽게, 그리고 마치 나머지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의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무슨 종류의 죄든 그것은 항상 정죄되어야 하고 결코 변명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교만은, 특별히 우리자신들이나 우리의 영웅들을 거스리는 정죄를 듣는 것은 모두 저항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마땅하고 만일 우리,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 혹은 우리 기관들 안에 또 우리의 과거 속에 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 뎀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에 저항이 없어야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속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 버려야 합니다. 죄에 매달려 있거나, 죄를 부인하거나, 죄를 변명하면 수치 밖에 없지만, 죄가 있으면 아무도 버림 받고 용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교리적 입장들을 취해왔던 형제들은 항상 교회 법정에서 소환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죄들을 지은 형제들은 교회 법정에서 소환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회개와 용서가 있어 왔고, 거기에 또 치리가 있어 왔고, 그리고 몇몇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정당성을 인정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성경 주석 속에 오류를 허용해 왔고, 우리 자신들의 교회 교인들에게 해를 초래하는 그럴듯하게 합리화된 인종주의적 견해들을 퍼뜨리는 것을 허용해 왔고,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아주 말을 하지 않았습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이지 않다"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귀를 잡아 내동댕이를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인간들은 우리와 동등하지 않다는지, 그들의 결혼이 불결하다든지, 혹 그들의 영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법정에서 그들에게 걸출한 자리들을 허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을 인정하는 것, 혹은 아픔과 고통에 대한 어떤 의미의 소유를 통하여 치유 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와 계속 적대적이 아닌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죄되고 어떤 종류의 계속되는 죄책과 정죄 아래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보복적이고 가증스런 태도들, 생각들과 우리의 과거의 행위들이 현재에서 이의 없이 허용되고, 그것의 희생자들이 되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모욕으로 남아있는 것을 수용 할 수 없습니다.

랜디 나보스